

‘한일엠이씨 50년의 이야기’ 발간

지난 1966년에 설립된 (주)한일엠이씨(대표 정차수)가 최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엠이씨 50년의 이야기’를 발간하고 지난 50년을 더듬어 보는 한편, 향후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한일엠이씨 50년의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보면 ‘Ⅰ. 한일 50년의 길_기술한일의 터를 닦다’에서는 지난 50년간 설비 불모지에 터를 닦고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이야기와 설립자 최상홍 회장 이야기, 기술이 경쟁력이 된 배경을 담았다. ‘Ⅱ. 미래로 향하는 길_100년을 설계하다’에서는 연구시설·병원, 공공·공항·데이터센터, 초고층·초대형 건물·오피스, 판매·복합·전시·호텔, 해외건축물 등을 소개했다. ‘Ⅲ. 오늘로 잇는 길_도전과 개혁의 시대’에서는 한일엠이씨의 기술과 혼이 담긴 프로젝트와 시대를 앞서 적용된 한일엠이씨의 기술, 진행 도중 포기된 프로젝트와 설계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Ⅳ. 한일 100년을 설계하다’에서는 프로젝트에서 배운 기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담았다.

최상홍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일엠이씨의 50년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이고, 100년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결과물이다. 지난 50년은 나무를 심고 다듬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키워온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와 실행을 위한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한일엠이씨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일엠이씨 100년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정차수 대표이사도 발간사를 통해 “한일엠이씨는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하고 발전시키는 기업, 그리고 그 기술력을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이·이전시키는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한일엠이씨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설비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엠이씨 50년의 이야기를 발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럽다. 오늘의 한일엠이씨를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